

- 환영: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Home!
- 110주년 창립주일: 7월 21일 주일 / 창립예배 오전10시, 설교: 김광진 목사 / 창립감사예배 오후4시 설교: 칼라노 감독
- 예배: 다음 주일(7일) 설교- 박상하 목사(파라과이 선교사) / 성찬식 보좌: 민예인 전도사 정지선 장로 송의섭 장로
- 명예장로 임직준비모임: 오늘 친교 후 회의실
- 창립110주년예배 3차 준비모임: 다음 주일(7/7) 친교 후 회의실 / 논의: 110주년 기념예배와 사역 점검
- 2024년 장학생 선발: 대상- 북가주에 거주하는 대학신입생 및 재학생, 대학원생, 신학생 / 20명 선발(1인 \$1,000) / 마감: 7월 27일(토) /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대학합격편지, 재학증명서, 추천서(1인) / 제출: okumc9078@gmail.com
- 파라과이 선교비전트립: 10월 7일(월)~16일(수) 9박10일 / 예상경비: \$2,500 / 문의,신청: 담임목사, 최인택 장로 / 준비모임: 다음 주일(7일) 친교 후 회의실
- 교육부주관 특별집회: 강사 정상혁 목사(인천 새노래사랑교회) 8월10일(토) 10-3시 세미나 / 8월11일 주일예배 간증집회
- 베이비샤워: 오늘 친교시간, 민예인 전도사 가정
- 주중예배: 7월 수요일예배는 개인적으로 / 토요일아침예배 7월6일 오전7시30분 설교: 박상하 선교사
- 주일/한국학교: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10시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친교 후 2층에서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 청년부: 매월 마지막주 청년부 자체예배를 2층 청년부실에서 드립니다. 예배 후 청년부 친교/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 겨자씨 선교회 평화통일 심포지움: 7월 13일 토 오후5시 본교회 / 강사: 이창순 목사, 조민상 박사
- 한인코커스/목사회 주관 선교사 파송예배: 7월 14일 주일 오후5시 본교회 / 김두식 목사 이소라 사모 라오스 파송선교사
- 담임목사 동정: 서부지역목회자수양회 (7/1-4) 라스베가스
- 주일친교: 오늘: 김남식 권사 / 다음주일: 교회버스 탑승교우들 (김국희 배현의 김정필 이복원 이강은)/ 5-6월 강단 헌화: 기쁨/주향한속 / 친교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뒷정리도 부탁드립니다.
- 교우소식: 연락하신 교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강일성 장로, 박태순 집사, 전화순 권사 / 이사: 김충식 집사 가정(콩코드), 민예인 전도사 가정(버클리)

2024년 표어와 목표

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2024년 기도제목과 성구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2)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Worship] Sun 10am
수요찬양예배	오전 10시(대면/영상)		[Bible Study] Sun 11am
토요일아침예배	오전7시반(대면/영상)	Youth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Gathering] After Worship
주일중보기도모임	-		

[오클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kschool.org / 종강 5월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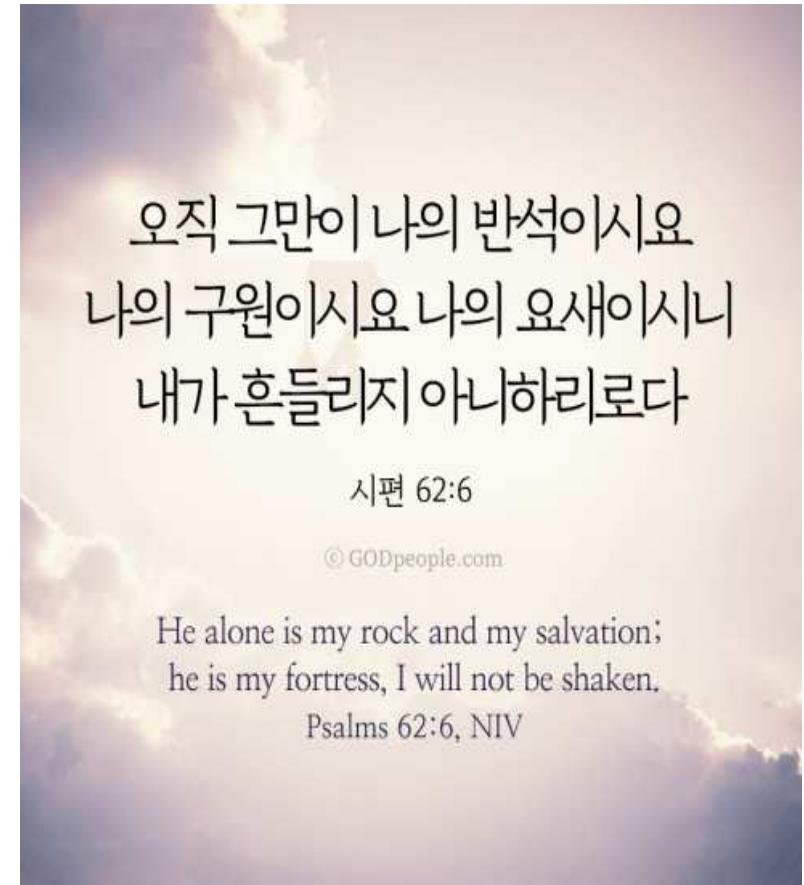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정현섭 [Lead Pastor] Hyun Jung hsjungusa@hotmail.com
- [전도사] 민예인
- [교육간사] 한선욱
- [행정간사] 김하영
- [지휘자] 최희숙
- [반주자] 공은선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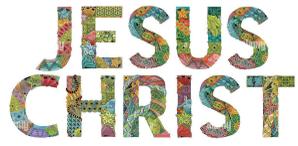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overflowing with Grace and Peace



주 일 예 배

2024년 6월 30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 민예인 전도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찬 송 Hymn /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회 중 기 도 Prayer / 손수락 장로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참 좋으신 주님"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열왕기상 20장 38-42절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받은 자는 곧 지키는 자"

새가족 환영과 알림 Announcement /

❖ 봉헌 및 찬송 Offering, Hymn /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6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예배	7/8월 예배섬김
2	담임목사/성찬예식	수요오전예배 오전10시 *****	[안내위원] 곽송자 권사 정정자 권사 이연진 권사
9	황원규 권사		
16	조길호 장로	토요일밤예배 오전7시30분	[봉헌위원] 윤숙자 권사
23	민예인 전도사		
30	손수락 장로		

[수요/토요일예배: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이번주 수요예배는 개인적으로 / 토요일아침예배(7/6) 오전7시반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자	서연일 자매	방문	임은자 권사
	김동규 성도 윤희선 성도	방문	김진세 형제
	Jason Han 성도 가정	방문	한연우 권사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6월 23일 / 합계: \$8,574.00]

[십일조] 공은선

[감사헌금] 강일성/순자(손녀출산) 배현의 손동준 손옥순 송의섭
윤행자 전상숙 전선재

[주정/월정/주일헌금] 김국희 김단진 김정필 남정우 무명 박혜숙
이강은 이종혁/연진 전상숙 정기호 정민섭 정신애 정지선 정현섭
최희숙 한건석

[지정헌금] 김국희(1여선) 남선교회(장례) 엄미(건축) 오금희(나눔의
동산) 전선재(선교)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예배	77명	수요/토요일예배	14/18명
속 회	속장/인도자	모임 보고 / 모임 안내	
믿음 사랑속	윤숙자/오금희	[안내] 7/19/금/11시/교회(윤숙자 권사)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감사	이문자/황원규	[안내] 7/25/목/2시/이학주 권사택	나눔카페
샬롬	정정자/정지선	[보고] 6/6/목/김총식 사업장/6명	예수사랑
와보라	손성리/손수락	[보고] 6/28/금/교회(이옥배 권사)/8명	멕시코 키르키즈스탄
온유	송재현/곽태길	[보고] 6/23/주일/곽태길 권사택/8명	파라과이2
기쁨	양경혜/최인택	[안내] 6/21/금/4시/최인택 장로택	가나안교회
주향한	현순정/이종혁	[보고] 6/14/금/윤진자 권사택/5명	카자흐스탄
청장년 청년	정지현/민예인	[보고] 4/12/금/6명/민예인 전도사택	기아대책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문제를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하여든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정도면 순종의 훈련에 합격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은신처가 이방땅의 이방인의 집, 그것도 무력한 과부의 집이었다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큰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자 ...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훈련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비난을 감당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부당하게 비난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부와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를 통해 생각지 못한 복을 누렸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자 죽음의 책임을 과부가 엘리야에게 돌리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17장 [18]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나 엘리야는 억울하다고 맞서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그쳐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과부의 문제를 자신이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17장 [24] ...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가 아들의 주검, 즉 문제를 품고 엎드렸더니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훈련을 시키실 때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기적과 복을 허락하시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6월 26일 수요찬양예배 열왕기상 17장 묵상 중에서

[기쁨의 언덕으로]	1일(월) 열왕기하 5장	2일(화) 열왕기하 5장
매일성경통독과 묵상	3일(수) 열왕기하 6장	4일(목) 열왕기하 7장
7월 : 열왕기하/하박국	5일(금) 열왕기하 8장	6일(토) 열왕기하 9-10장